

석탄 : 습원에서 나오는 천연자원

구시로 탄전은 구시로 일대의 비옥한 이탄지를 기반으로 약 3,800 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. 습하고 기온이 낮은 습원과 늪지대에서는 말라죽은 식물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분해된 식물이 층층이 쌓여 천천히 이탄이 생성되어 갑니다. 그 후 수천 년에 걸쳐 쌓인 층의 무게로 이탄이 압축되면서 서서히 화석화되어 석탄이 됩니다. 구시로 습원에는 일본 최대의 이탄지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볼 수 있는 이탄은 언젠가 석탄이 될지도 모릅니다.

구시로 탄전에는 10 개가 넘는 탄층(채굴 가능한 두께의 석탄층)이 있으며, 각 층의 두께는 5m 에 달합니다. 구시로시 동쪽에 위치한 이 탄층들은 해저 아래에 펼쳐져 있습니다. 1920 년 대규모 채굴이 시작된 이래 석탄은 구시로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, 더 나아가 고용 창출로 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. 과거 구시로의 태평양 탄광은 일본 최대 규모의 탄광이었습니다. 현재 구시로의 탄광은 일본에서 유일한 갱내채굴 탄광으로 구시로 콜마인사(社)가 조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구시로 콜마인사(社)는 연간 약 20 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